

협회소식 / 80
건축계소식 / 84
현상설계경기 / 92
계획작품 / 96
해외잡지동향 / 100
인터넷 건축여행 / 106
통계(설계도시신고현황) / 108
신입회원 / 110
게시판 / 111

협회소식 KIRA news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우리협회 제32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14일 오전 11시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등 9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재적대의원 6백35명중 4백93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이항렬 건설교통부차관보와 시라이시 세이찌 일본건축사연합회 부회장, 협회 자문위원 등 내·외빈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오전 11시에 개최돼 주요업무보고와 감사보고,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오늘의 건축환경이지만 현실이 어려울수록 뛰어난 현실감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주적인 건축·자율적인 건축사·자립적인 건축사협회」를 모토로 이를 체계화·조직화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건축사백서'라는 이름으로 내년 총회에 제출하겠다"고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밝혔다.

제32회 정기총회 / 개회사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멀리 지방에서 오신 대의원 여러분! 노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더욱 淸明한 가을하늘은 우리 건축사의 미래를 보다 높고 푸르게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 건설교통부 李鄕烈 차관보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멀리 일본에서 참석해주신 「일본건축사회 연합회」의 시라이시 세이찌(白石靜一) 부회장님 일행,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협회 역대 회장님들과 만장하신 대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우리 협회가 서른 두돌을 맞기까지 뜨거운 애정과 크나큰 협조를 다해주신 전국의 6,700여 회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둔 최근 몇 년동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變化와 挑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WTO·OECD 등으로 요약되는 國際開放의 물결이 도도히 밀려오고 있고, 안으로는 규제혁파·구조조정·국가경쟁력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國內開放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二重苦의 현상입니다. 여기예다가 景氣不況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가히 三重苦를 겪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러한 고통은 우리 건축사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인 동시에 오늘의 世紀末을 함께 살고 있는 온 인류의 시련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사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가중될수록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입니다.

끝없는 創意와 創作을 기본으로 하는 「未來의 設計者」가 바로 우리 건축사가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현실감각과 놀라운 미래감각은 기필코 이 轉換期의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世紀末의 위기를 轉禍爲福의 계기로 昇華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총회의 관심사가 될 공정거래위원회의 「설계검업」문제와 내년으로 연기된 「전국건축사대회」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현안들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모든 회원님들께 회장書信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설계검업」문제는, 公正委가 끝까지 주장한 자기시공공사와 턴키공사는 우리의 주장대로 비토되고 말았고 다만, 「2,000년도에 가서 그 확대여부를 재검토 하되 자가업무용 건축물에 한해서만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솔한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3가지 엄청난 요구사항, 즉 첫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를 임의화 하자 둘째, 건설회사가 설계와 감리업무까지도 하자 셋째, 건축사사무소의 명칭도 임의화 하자 등 우리 건축사의 「代表性과 고유업무」까지 말살시키려 했던 엄청난 核風을 상기해 볼 때 夙昔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소 아쉬움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시대적 추세가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그나마 건교부가 끝까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상대는 재벌과 모든 경제단체로서 우리에게 총공세를 퍼부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대국적인 이해와 아량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어 이항렬 차관보가 건설교통부 장관 지사를 대독하고 시라이 세이치 일본건축사연합회 회장이 양국 건축사회가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해 향후 국제간 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동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의 축하메시지를 우리말로 전하자 대의원들은 큰 박수로 이에 화답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회의초반부터 지난 8월말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자가업무용 건축물에 한해 건설업체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여러 대의원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이를 제1호의안으로 상정,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일부 대의원은 '자가업무용 건물'이라는 것이 건설회사의 자체 '사옥'만을 의미하도록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협회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 안건은

논의 끝에 기존 협회발전위원회 비상대책분과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정정기까지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이밖에 올해 정기총회의 각 부의안건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건축사법 개정에 대한 대책의 건



정기총회 광경

- 건축사법개정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위원은 협회발전위원회 비상대책분과위원으로 함.)

- 제2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의 결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건축관련법이 개정될 것을 감안, 유보키로 함.
- 제3호의안 :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정 승인의 건
- 본협회 및 시·도건축사회의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해 새 규정을 제정코자 상정한 원안을 통과시킴.
- 제4호의안 : 98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 97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한 원안 통과
- 제5호의안 : 회관재건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현 회관의 사무공간 부족과 향후 협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건설교통부와 의 법개정 과정에서 「자가업무용,이란 용어가 결코 왜곡되거나 확대 재생산 되지 않고 사무소(사옥)에만 국한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며, 집행부는 앞으로 혼신의 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건설교통부 李鄴烈 차관보님께 初志一貫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시길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국건축사대회」의 연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사대회와 관련하여 정해진 오늘의 총회장소가 협회강당으로 뒤늦게 변경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長으로서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사대회는 원래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만, 내년으로 연기한 것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대규모 이벤트행사나 축제행사는 자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둘째는, 공정위 관련문제가 일단락된 현 상황에서 대정부 압력이나 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다는 판단이었으며 셋째는, 더욱이 의무적인 연수교육이 아닐 경우 대회 참가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시·도건축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대회 집행위원회와 시·도회장회의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부득이 내년 5월경으로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년의 시기적 의미는 새정부 출범 이후와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타이밍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방정책과 생업의 진로를 더욱 면밀히 연구검토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부의 고뇌 끝에 내려진 결정임을 심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98전국건축사대회」는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나 일본의 건축사대회처럼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주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수준높은 행사를 계획함으로써, 대내외 개방시점에서 현업에 꼭 필요한 교육내용, 건축사문제와 건축계 이슈에 대한 대토론회의 場 마련 그리고 회원간의 공동체 의식과 인간적 유대강화를 위한 祝祭행사 등 보다 획기적이고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꼭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前進이나 後退나를 결정짓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그동안 「설계검업」 문제라는 소모성 논쟁속에 휘둘러 우리의 에너지를 끝없이 소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협회는 「건축·건축사·건축사협회의 내일」을 위해 그야말로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7월 「건축연구소」를 본격 출범시켰고, 모든 회원님들이 갈구하고 있는 「건축정보센터」구축에도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축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기관」지정을 이미 건설교통부에 신청해 두고 있으며, 우리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현재의 아시아권에서 미국, 유럽 등지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오늘 총회에서도 「공제조합 설립 추진계획(안)」과 「회관 재건립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장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사업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건축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오늘의 현실을 과감히 떨치고 내일로 미래로 그리고 세계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감히 외치고 싶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본협회는 앞으로 自主的인 建築, 自律的인 建築士, 自立的인 建築士協會 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세우고 이를 체계화, 조직화 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총정리하여 「건축사 白書」라는 이름으로 내년 총회에서 반드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建築이 전문분야로 높이 평가받는 풍토,
- 建築士가 전문인으로서 존경받는 사회,
- 建築士協會는 회원을 위한 무한봉사의 조직체 바로 이런 목표 아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반드시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끝으로, 이런 모든 발전사업과 계획들은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적인 격려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건축계의 미래를 담보할 「기대의 한마당」 「가능성의 대공간」으로 승화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회장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를 위해 막중한 소명의식과 고귀한 책임감을 계속 원수해 나가는데 진력, 또 진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오늘의 총회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대의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안녕과 행복이 넘치고 직장에는 늘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7. 10. 14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영수

회 기능의 활성화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회관 재건립을 계획하였으나 현 협회의 실정을 감안, 유보키로 함.

- 제6호의안 : 공제조합 설립 추진계획 (안) 승인의 건
 - 1단계로 97년 하반기까지 공제조합 설립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정관과 제 규정을 정리해, 98년도에는 공제조합설립기구를 구성, 설립자금을 모집한 후 3단계인 98년도 하반기나 99년도 상반기까지 조합을 설립하기로 한 원안을 통과시킴.
- 제7호의안 : 97년도 건설기술자경력 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수지예산 (안) 추인의 건
 - 원안통과(1,123,384,006원)
- 제8호의안 :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월정회비는 당초 월 35,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족액은 임의적립금 이자로 대체키로 하며

사무비항(여비목)의 교통보조비는 복리후생비항의 중식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통과

- 제9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임기가 만료된 이사 7인에 대해서는 회장에 위임하고 감사1인에 대한 선임은 시·도건축사 회장 회의에 위임. 단 선임결과는 대의원에게 통보.

신임임원 명단

이사

(유임) 김무언(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신임) 김순명(신리건축사사무소)

김충광(수도건축사사무소)

민경민(주·에그린건축사사무소)

박서홍(주·희산건축사사무소)

변종환(공간조형건축사사무소)

이건호(주·대도건축사사무소)

감사

(신임) 송기준(주·무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의원 통보에 같음함

이사회 개회

제32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9월 14일(제14회)과 10월 8일(제15회)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제32회 정기총회 / 건설교통부장관 치사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32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金榮洙 회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致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 창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계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에 우리 건축계도 예외지대가 아니며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건축설계 용역업계가 국내시장을 거의 독점하였으나 이제 WTO나 OECD 체제하에서는 정부도 더 이상 우리나라 건축사만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축계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설계기술을 향상시키고 감리의 질을 높여 High-Touch(高 디자인)와 High-Tech(高科技)로 승부를 걸어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합리성을 앞세운 개발개념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주거대회를 기점으로 환경친화적 개념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소산이며 세계사의 필연적인 발전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동안 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건축정보센터」와 금년에 출발된 「건축연구소」가 활성화되면 첨단 설계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향후 우리 건축계의 경쟁력 확보에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추진중인 공제조합 설립과 회관재건립사업 등을 통하여 건축계가 새로운 면모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건축환경을 새롭게 다져서 세계화 추세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동시에 개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시장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령과 제도를 정비·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 자율화에 걸맞는 선진행정 체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계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에 따른 부실적결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고품질의 건축물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가로 거듭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專門人으로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의 후손을 위해 건축문화의 百年大計를 훌륭하게 설계해 줄 것을 當付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약의 마당」·「희망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7. 10. 14

건설교통부 장관 이 환 구

● 제14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98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97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제2호의안 : 회관재건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현 회관의 사무공간 부족과 협회 기능의 활성화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회관 재건립 계획을 총회승인을 거쳐 가급적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 제3호의안 : 공제조합설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1단계로 97년 하반기까지 공제조합 설립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정관과 제규정을 정리해, 98년도에는 공제조합설립기구를 구성, 설립자금을 모집한 후 3단계인 98년도 하반기나 99년도 상반기까지 조합을 설립)
- 제4호의안 :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7년보다 3.7% 증액된 총 5,175,751,000원으로 편성. 특별회계는 건축연구소회계(신설) 440,074,000원, 입회비관리회계 3,448,604,000원,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1,325,354,000원, 건축사시험관리회계 525,110,000원으로 편성)
- 제5호의안 : 제32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원안통과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98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제4호의안 : 회관재건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공제조합 설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97년도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제7호의안 :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승인의 건, 제8호의안 : 임원개선의 건

- 제6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7호의안 :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8호의안 : 보조금 지원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한국여성건축가협회 행사보조금 200만원)
- 제9호의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국토개발연구원 회원가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본협회 건축연구소에 서도 타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함)
- 제10호의안 : 직원표창 수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표창대상자 4명)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창심사기준(근무년수, 수상경력 등)을 재검토해 조정키로 하고, 내년부터는 모범직원상 이외에 공로상 수여도 검토키로 함. 시·도건축사회 직원표창 문제는 시·도건축사회 사무국장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제15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97년도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예비비사용 : 28,239,200원)
- 제2호의안 :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 고문변호사 위촉 여부 및 위촉시 위촉자 선정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3호의안 : 제32회 정기총회 장소변경 승인의 건

구분	당 초	변 경
일시	97.10.14(화) 11:00	(변경없음)
장소	올림픽 유스호스텔	분협회 강당

제3회 부산건축사

회원작품전 성료

부산건축사회 회원작품 40점 전시



작품전개막식 광경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종명)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방송,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공동후원한 제3회 부산건축사 회원작품전이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12층 '예당'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에는 권원형(건축사사무소 K-Project), 남진관(유진건축사사무소), 손욱(토탈건축사사무소), 이형재(동남종합건축사사무소), 추교준(환경건축사사무소) 등 부산건축사회 소속 회원 37인의 작품 40여점이 전시됐다. 한편 전시첫째날인 10월 4일에는 서울건축사회 이세훈 회장을 비롯, 박종대 부산광역시 주택국장, 류종우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부 회장, 한병우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회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전시개막을 축하하였다.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체육대회 개최

회원 친목과 단합다져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윤영재)는 지난 10월 10일 수원 농민회관 운동장에서 회원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에 참가한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회원 370여명은 각 지역건축사회별로 팀을 이뤄 배구와 발야구, 줄다리기, 윷놀이



체육대회 개회식 광경

등 종목별 대항전을 펼치며 회원간 친목과 유대를 다졌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안양·시흥건축사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수원·오산지역건축사회와 고양지역건축사회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여성건축사회, 전통건축답사 실시

답사기간중 총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활동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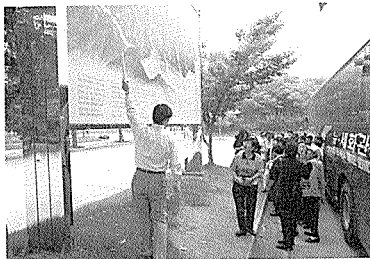
여성건축사회(회장 문숙경, 예문건축)는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경주와 포항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회원연수를 겸한 전통건축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통건축답사에는 이유림(예도건축), 박영순(삼화건축)씨 등 여성건축사 40여명이 참가, 경주 남산의 마애불상과 포항방면에 위치한 양동마을의 전통가옥을 찾아 한옥 등 우리 전통건축물들을 주의깊게 둘러보았다. 여성건축사들은 또 이번 답사기간중 매일경제신문사가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한 부산의 해운대 대우아파트와 현대아파트를 견학했으며 흥대형(서울시립대), 이강근(경주대) 교수의 전통건축을 주제로한 강연회에도 참석했다.

한편 여성건축사회 회원들은 이번 답사 일정기간중 경주 힐튼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문숙경씨를 회장으로서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는 한편 회칙을 새로 제정해 앞으로 여성건축사들의 활동을 본격

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월초 연세재단빌딩 내 대우주택 문화관에서 배효숙(건축공방), 류난형(주메건축), 박연심(장원건축)씨 등 9명의 여성건축사회 회원들이 '주거 및 보육시설'을 주제로한 작품전시회를 가진 것을 비롯, 지난 5월부터는 대우주택문화관에서 시민과 건축주들을 상대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상담을 실시하는 등 최근들어 여성건축사회가 부쩍 바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건축답사에 나선 여성건축사 회원들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예비합격자 발표

전체 응시인원의 32.9%인
총 1천3백19명 합격

지난 9월7일에 실시된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예비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 시험에는 전체응시자 4천15명중 1천3백19명이 합격, 32.9%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합격률 37.9%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실제 합격자수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272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시험의 최고득점자는 3백점만점에 2백68점을 얻은 이재효(동의대졸, 37세)씨로 밝혀졌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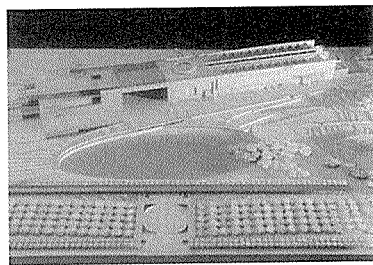
남대를 졸업한 유병숙(27세)씨로 알려졌다.

이들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학력과 경력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축계소식 archi-net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기공

2002년말에 완공해 2003년 개관



국립중앙박물관 모형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기공식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있었다.

용산가족공원의 9만3천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4만6백여평의 규모로 건립되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총공사비만도 4천2백12억원이 이르는 대공사로 오는 2002년말에 완공해, 1년간의 전시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개관될 예정이다.

규모면에서 대영박물관이나 파리 루브르 박물관 못지 않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게 될 새 박물관은 지난 94년말 국제현상설계를 실시, 95년 10월에 (주)정림건축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해 올해 6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대가